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사례

정 광 제 | 위험관리센터 자장

이 글은 최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국내·외 화재사고를 요약한 내용이다.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 화재사례를 되돌아 봄으로써 국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스웨덴 나이트클럽 화재

1998년 10월 28일(목) 저녁, 스웨덴의 고텐버그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3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였고, 180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발생 당시 2층에서는 약 400여 명이 참석한 할로윈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파티가 열리고 있던 홀의 크기는 304㎡(가로 32m, 세로 9.5m)이었으나, 화재경보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홀 양쪽 끝 부분에 비상구와 유도표지만 설치되어 있었다. NFPA 화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를 확대시킨 주 요인을 수용인원의 과밀과 화재경보설비의 미설치 및 복도에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 중국 영화관 화재

2000년 3월 29일(수) 03시 30분(경) 중국 중부 허난성 자오쥬시에 위치한 심야 영화관 '티엔탕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바로 옆에 붙은 또 다른 심야 영화관으로 순식간에 연소확대되었으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하여 최소 74명이 사망하였다.

3 인천 MIT 소주방 화재

2000년 4월 18일(화) 19시 36분(경), 인천시 부평동에 위치한 'MIT 소주방'에서 종업원(최모씨, 23세)이 손님 생일축하 '불쇼'를 하기 위해 쟁반 위에 500cc 호프잔과



잔과 위스키 잔 7개를 3층으로 쌓고ライター용 액화가스를 잔에 부은 다음, 스노 스프레이를 뿌려놓고ライター 불을 붙이는 순간, 불꽃이 치솟으면서 천장 실내장식(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급격히 연소확대되었다. 이 화재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소주방 내부 107평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4 호주 유스호스텔 화재

2000년 6월 23일(금) 밤 12시(경), 호주 브리스번에서 북쪽으로 315km 떨어진 칠더즈 마을에 위치한 배낭 여행객을 위한 ‘팰리스 백팩커스 호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영국인 10명 등 외국인 15명을 포함하여 18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5 성남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2000년 10월 18일(수) 20시 58분(경), 성남시 성남동에 위치한 삼보빌딩의 지하 1층 ‘아마존 단란주점’의 1번 룸에서 선풍기 전원 플러그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단란주점 내부 30여 평을 태웠으며, 카펫과 실내 장식물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손님과 여 종업원 등 7명이 사망하였다.

6 멕시코 나이트클럽 화재

2000년 10월 20일(금) 05시(경), 멕시코시티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진 ‘Lobohombo 나이트클럽’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2층인 나이트클럽이 붕괴되면서 20명이 사망하였고, 27명이 부상(중태 11명)을 입었다. 이 나이트클럽은 전면을 유리로 장식한 넓이가 3,000㎡로서 규모가 크고 내부 통로는 미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소규모 화재가 발생한 후 폐쇄되었지만 6월에 시 당국자들로부터 점검을 받은 다음 부정확한 방법으로 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㉞

